

월가 흔든 '시공포' 무색... 삼성·하이닉스, 시총 2000조 돌파

“매수보다 매도 어렵다” 격언 재소환
개미들 “언제 팔까” 매도 타이밍 고심
증권가 “이번 사이클, B2B 수요 변수”
1분기 D램 계약가 70~100% 급등 전망

직장인 김광중(가명)씨는 작년 11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각각 10만원, 57만원 안팎에 샀다. 오랜만에 PC를 한 대 장만하려고 부품 값을 보다가 램 가격이 몇 달 전의 거의 두 배가 된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언론을 통해 ‘D램 품귀’ 이야기도 이어지자 “반도체가 더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김씨는 현재 90%가 넘는 평가 이익을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상승 폭이 커지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김씨는 “너무 많이 오르니 무섭다”며 “이제 슬슬 팔아야 할 것 같은데, 타이밍을 도무지 못 잡겠다”고 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 전자 주가가 ‘20만전자’를 기록,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종가 100만5000원)을 돌파했다. 두 기업의 합계 시가총액은 2009조원(우선주 포함)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발흥풍을 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 주가가 강세를 이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과연 언제쯤 수익을 거둬들이면 되는지로 모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선 “매수보다 매도가 어렵다”는 격언이 다시 회자된다. 주가가 오를수록 언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할지가 고민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업황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단순히 오름폭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사이클이 어떤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투톱 시가총액 2000조원 시대
삼성전자 주가는 올 들어 66.81%, SK하이닉스 주가는 54.38% 올랐다. 작년 말 기준 두 회사 시가총액은 합계 1256조원대였지만, 이날 2000조원대로 불어났다.

‘반도체 겨울이 온다’ ‘빙산이 다가온다’는 보고서를 내며 반도체 비판론의 선봉에 섰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 스탠리는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84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로는 삼성전자 245조원, SK하이닉스 179조원을 제시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예상치(삼성전자 158조원, 138조원)보다 각각 55%, 29.7% 높다. 모건스탠리는 “전체 메모리 반도체 물량은 이미 내년까지 완판됐고 올 1분기 D램 계약 가격은 70~100% 급등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2027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29만원, 156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영국 바클레이즈도 “삼성전자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여전히 낮다”며 영국 런던 증시에 상장된

‘해외 주식예탁증서(GDR)’의 목표 주가를 3600달러로 높였다. 국내 본주 환산시 21만1600원 정도다.

두 종목을 투자 바구니에 담아놓은 투자자 대부분은 현재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개인들은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4조199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 주식은 3170억원어치 팔았다.

회사원 박모(48)씨는 “평균 매수단가가 7만5000원인데, 10만전자까지는 팔고 싶은 유혹을 잘 버렸는데 막상 ‘20만전자’가 되니 심각하게 고민된다”며 “삼전을 가진 주변 동료 대부분이 (언제 팔지) 눈치 게임 중”이라고 말했다.

◆개미들은 궁금하다, 매도 타이밍
반도체 업황을 들여다보는 전문가들 대부분은 “진짜 수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고 본다. 과거 2년 주기로 등락했던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모바일과 PC, 가전 등 소비자 중심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등 AI 관련 투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B2B(기업 간 거래) 수요라는 점에서 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대신증권은 올해 범용 D램과 낸드 평균판매가격(ASP)이 전년 대비 각각 150%, 9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 역시 “이익 전망치가 주가보다 더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수출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35억달러였다. 반도체 수출이 151억1500만달러로 전년보다 134.1% 급증한 영향이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년 전보다 16.4%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반도체 업황 사이클보다 주가가 늘 앞서갔다는 게 문제다. 2000년대 이후 몇 번의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기 약 6~9개월 전 주가는 고점을 형성한 후 먼저 꺾인 적이 많았다.

AI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에는 ‘AI 공포 투매’가 미국 월가를 뒤흔들었다. 시트리니 리서치는 전날 구독플랫폼 서브스택에 올린 보고서에서 인공지능 혁신으로 화이트칼라 실업률이 급증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서 2028년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2021년 ‘과잉 발주’된 반도체가 2023년 1분기 ‘과잉 재고’가 돼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급락했던 것처럼, 달콤한 파티가 훗날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트럼프 관세 재부과에 시장 불안... 금 오르고 코인 하락

23일 국제 금 선물 온스당 5225.60佛
‘2차 관세’·美-이란 긴장에 금 수요 ↑
금·코인 ‘탈동조화’... 디지털 금 옛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급등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를 재부과하며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한 영향이다. 아울러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금 가격을 끌어 올렸다. 불확실성에 금값이 오른 반면, 한 때 ‘디지털 금’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이어갔다.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 확산... ‘안전자산’ 수요 ↑

24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거래된 4월 인도물 금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5225.60달러다. 전 거래일 종가와 비교해 144.70달러(2.85%) 올랐다. 이는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국제 금값은 지난 1월 30일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으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사로 여겨지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이후 700달러 이상 하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며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금값이 급등한 것은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을 내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부과와 중동발 불확실성으로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전시중인 골드바. /뉴시스

‘대체 관세’를 통해 관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섰다.

트럼프는 “터무니 없는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 결정 당시의 합의를 뒤집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과 인도가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조치를 두고 ‘합의 위반’이라며 무역협정 이행을 미루고 있는 만큼, 이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안전자산 수요로 이어졌다.

미국은 이라크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집결하고, 이란에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과 탄도미사일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해당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군 시설 등 제한적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금’ 옛말... 비트코인 약세
금 가격은 급등한 반면 과거 ‘디지털 금’

으로 여겨지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정오에 1BTC당 6만3864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30일 전과 비교해 28.4% 하락한 가격으로, 작년 10월 기록한 최고가인 12만6200달러와 비교해 49.2%나 급락했다. 금값이 작년 10월 초와 비교해 30% 넘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비트코인은 과거 ‘복제 불가’와 ‘희소성’을 이유로 ‘디지털 금’으로 불렸다. 가격도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과 유사하게 거시경제를 따라 움직였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상장지수펀드(ETF)의 출시로 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입됐으며, 기업들도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헤지(자산가치 보전)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비중을 늘린 영향이다.

그러나 작년 10월 미 연방정부의 ‘첫 다운(정부 기능 일시정지)’ 이후 비트코

인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금을 비롯한 안전자산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발생했다. 당시 비트코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 가상자산’ 정책에 힘입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섰다 운 이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시되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끌어내린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중단 선언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가격 부양을 위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매입도 없을 것이다. 오직 법적 사건으로 입수한 코인만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는 작년 3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일부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번복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당분간 ‘디지털 금’의 지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마리온 라부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비트코인의 작년 성과를 보면, 더는 ‘디지털 금’으로 볼 수 없다. 금값이 65% 상승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6.5% 하락했다”라면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나 화폐가 아니며, 금이나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규제와 사용 사례가 분명해질 때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분석했다.

/양승진 기자 asi1231@

증권가 “코스피 더 간다” 공포지수 뛰고 빗투 늘어

» 1면 ‘100만닉스...’서 계속

증권가는 ‘한국증시를 사라’고 외친다. 신디 박 노무라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모리 기업들이 올해 한국 전체 순이익의 64%를 차지하며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8000선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은 코스피 강세장 시나리오를 가정해 지수 목표치를 7500으로 제시했고, 씨티그룹은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500에서 7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국내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상황이 잦아지자 시장에서는 “현재의 지수 움직임이 정상적인 흐름이 맞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1.79포인트(3.86%) 뛴 48.13을 기록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그 경우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 역시 둔화될 수 있다”고 했다.

‘빗투’(빔내서투자)에나서는 개미들이 늘면서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는 31조7123억원으로 불었다. 투자자예탁금은 108조2901억원을 찍었다.

/허정윤·신하은기자